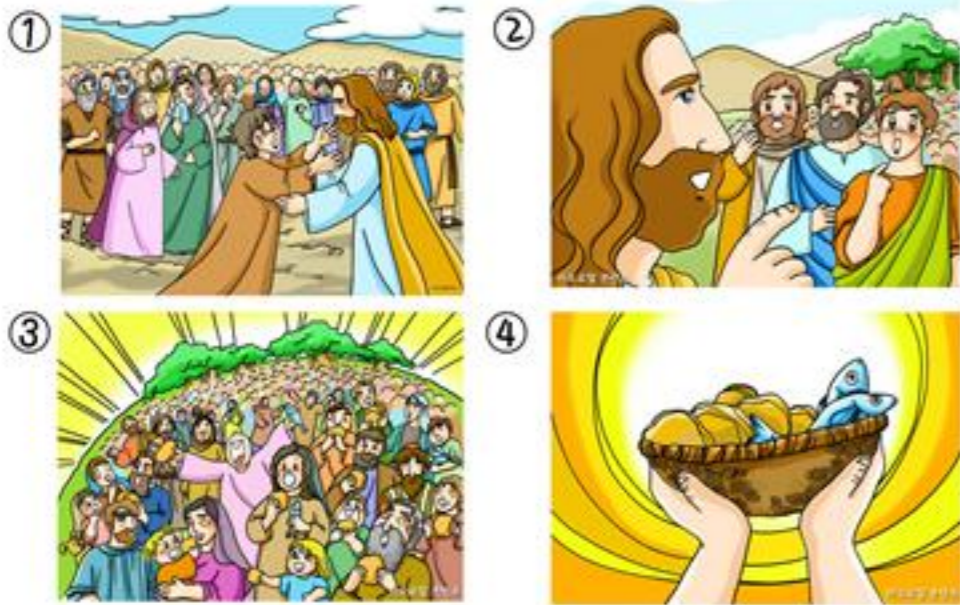


1. 오늘 복음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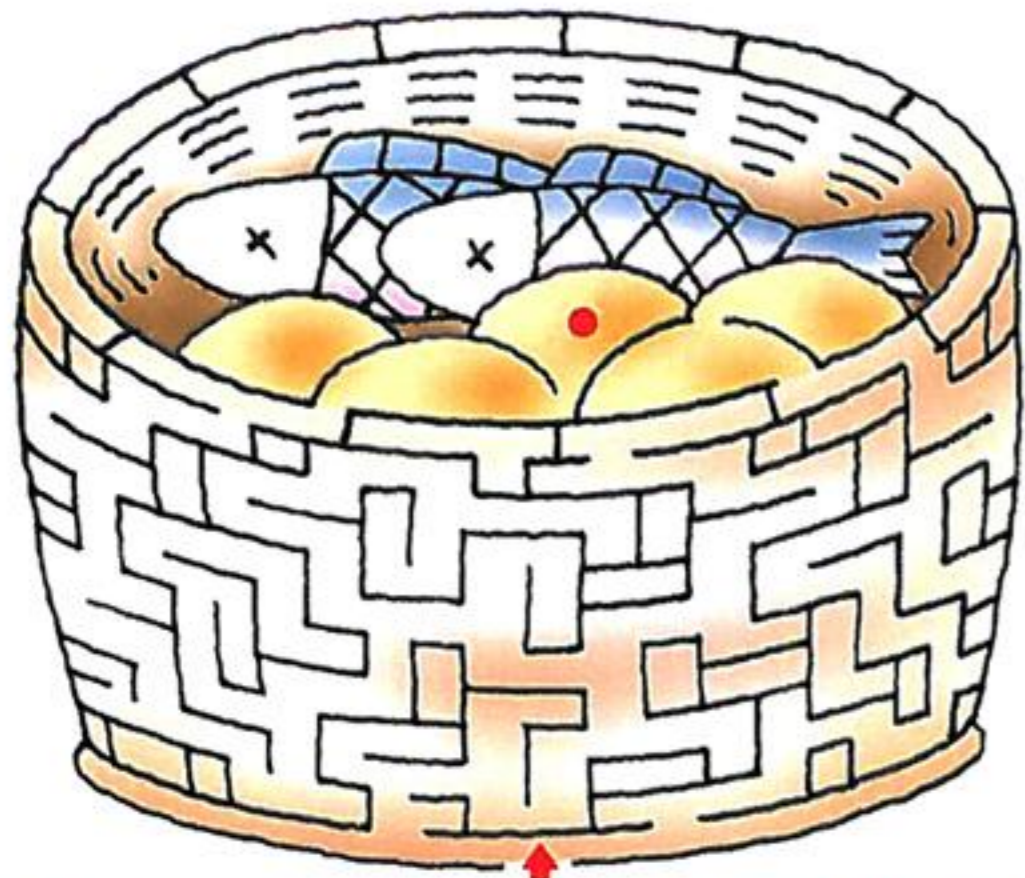
-> -> ->

2.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고도 남은 빵은 몇 광주리였나요?

- ① 열 광주리 ② 열한 광주리
- ③ 열두 광주리 ④ 열세 광주리

※ 실천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 지 생각해 보면서, 미로를 빠져나와 보리빵의 빨간 점까지 가세요.



정답은 6월 28일(금) 까지 우편(주보하단참조)으로 보내주세요.



† 찬미예수님.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교구 풍수원 성당 박동규 마르코 신부예요.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어요.

세상의 누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죠.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예요.
여러분 혹시 '좋아해'와 '사랑해'의 차이를 아시나요?
'좋아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심이지만,
'사랑해'는 사랑하는 상대가 중심이되어
상대방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할 때, 상대와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좋아해'**

'사랑해'는 나보다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신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 미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오세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모시며
그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말이죠.
바로 우리의 오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복음은 그런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오시기 전에
미리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미사의 모습이죠.
그러니 미사는 바로 예수님 사랑 전부이며 신비예요.
그 신비를 받은 우리 친구들도 바로 신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이제 성체와 성혈로 우리가 신비가 되었으니
친구들도 상대가 중심이 되는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첫영성체를 준비하거나 오늘 하는
친구들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루카 9, 16)



성당

학년

이름

성명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28(인동) 천주교 원주교구청 청소년교육국
033)765-4228 e-mail: wjch-O2@hanmail.net

1독서  **여행**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4,18-20

그 무렵 18 살렘 임금 멜키체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19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20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찬미 받으소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2독서  **여행**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1,23-26

형제 여러분, 23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24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25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26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빵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여행**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1-17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11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13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신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16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